

복음의 중심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서울시교시협 31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게 지형은 목사 선임

서울시교시협(이하 서울시협)은 지난 5월 13일(목) 성광성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 및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형은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교구협의회장 총무 등 99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간담회, 총회 등으로 진행됐다.

교시협 사무총장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지형은 목사는 “교회는 세상 한국에 주지자를 갖고 있으면서 기쁜 마음을 살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면서 “코로나19로 잃은 시간에 맥을 몰아주어 탄진으로 복음의 중심 가치가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코로나19 종식, 서울시와 시민의 안녕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시협이



오랫동안 힘과 애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펼쳤으며, 서울시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기에 인정적인 도사가 됐다”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젊은이들을 기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하길 것”을 요청했다.

예배 및 간담회 후 열린 총회에서 참석자

들은 지형은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인준했다.

지형은 신임 회장은 “서울시교시협이 오랫동안 서울시민과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해온 것에 대해 늘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신배들과 회원들의 협력하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인사했다.

기성교단, 제115년차 총회 개최

새로운 미래 향한 힘찬 전진 선포



사의 성경봉독, 제14차 총회장 한기재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행복함과 거룩함을 따르자”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재 목사는 “예수님이 주신 화해를 계속 누리고 증진하는 길은 성령을 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며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개인의 성결을 넘어 사회적 성결로 교회의 성결, 교단의 성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개혁, 30년 이상 정기근속 목사·장로, 국내선교 및 해외선교 후원, 30년 근속교사, 특별공로 등에 대한 시상 및 표창이 이어졌다.

각계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한국성경교단협의회 회원교단인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 내성 감독신민구 목사가 참석해 대면 축사를 전했다. 또 미주신교총회 총회장 윤석형 목사가 인사하고 교단총무 설봉식 목사의 내빈소개 후 전 총회장 조일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은 총본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자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좌석으로 운영됐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권병준·김민우·정진숙·독기을 거친 후 발명 및 규약준비 제약을 한 후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했다.

가수단 및 순서자 입성으로 시작된 개회 예배는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의 집례로 부총회장 고영환 장로의 기도 후 사기 이승각 목

CTS, 콘텐츠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식

전국 작은교회 성경학교 역할 감당할 것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TV어빙성경학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 CTS가 전국에 분교교회를 작은교회에 위한 TV어빙성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주요 교단 교육부서와 함께 “다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TV어빙성경학교는 CTS의 다세대 마스크인 예배의 성장이야기 ‘뉴스토리’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전략 콘텐츠를 아나나 성경적 기독교 교육과 신앙인육을 위한 CTS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활동, 봉합, 기성, 고신 기침 등 주요교단의 교육부서와 협력해 공과, 만



들기, 찬양 등 교회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

정이다. 각 교단 교육부의 동향으로 온택트 시대에 한국교회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홈스를 전문교육회사인 처음교육(대표 조은미) 등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관과 함께 캐릭터 상품기획과 교재개발 등 다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협력을 아갈 계획이다.

한편 CTS는 급변하는 OTT 시장에도 크리스천 다세대 콘텐츠 제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달라이브 플러스에 TV어빙성경학교를 론칭했으며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정식 플랫폼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

익선포럼, 쪽방촌과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사역

(사)해돋는마을에 대체식 전달



익선포럼회장 김성민은 지난 5월 20일(수)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신장평나 무교회 목사의 열드린노인대학원장 최사더 신대년 교우들과 함께 기성의 달 반사

전달식 을 갖고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반나눔 사역으로 전했다.

이날 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현일 목사와 김성민 회장을 비롯해 김성민 전 농림부장관

과 고본인 김희선 장로와 익선포럼 회원들이 이르신들께 사랑의 대체식을 전달했다.

반사장전달식에 이어 (주)베르나대표 나정은 장로와 임파루교회(김영자 목사)는 아이아날을맞아 사랑의 마음을 모아 사랑의 선행수 전달식도 가졌다.

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현일 목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일일 봉합의 대체식을 힘들고 있으면서 봉합에 전달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분에게 봉합해 드린다”며 “익선포럼 김 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김 목사님과 나 장로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로 익선포럼회원들을 비롯해 공영연 전도사, 구운 장로, 황세연 사무국장, 대체식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영자 회장, 이성신, 최문수 장비를 봉사에 동참했다.

세기총, 해외지회장 초청 워크숍

'인문학적 성경해석법'이라는 주제로 고시영 목사 강의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은 지난 5월 2일(금)부터 22일(토)까지 충청남도 대안군 소재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에서 지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가리아, 마리아, 팔레스타인, 태국, 멕시코, 페루 등 6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회장들과 가족들, 그리고 세기총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불가리아 지회장 김효종 선교사의 기도, 마리아 지회장 김준배 선교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비록 아 고기가 있나”고 21:1-2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충청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워크숍에는 공동회장 김기배 목사의 기도 후 충청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가 ‘인문학적 성경해석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고시영 목사는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독서만 변화해도 안 되고 교인들만 변화해도 안 된다”며 “독서와 교인(인)에 변화가 한국교회에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영 목사는 한국교회에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영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교인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교인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는,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한 훈련을 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교육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배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성 100회기 정기총회, 신임총회장 기자간담회

이상문 목사, “강한·멋진·감동 있는 교단 만들어 가겠다”

예성교대한성경교회 신임총회장 이상문 목사는 지난 5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한·멋진·감동 있는 교단! 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10일 제100회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된 이상문 총회장은 “새로운 시대는 달라진 변화의 시대! 만민은 은혜의 한 세기를 위한 살아 새 시대로 나아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추된 기독교 아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에 성경가족이 함께 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총회장은 “함께 중 영성 순교자 열정을 만들어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 예성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정례회 실시 및 유적지 보존 사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또 “총회헌장, 역사관, 100회기비 성경대요회 간추, 은금처럼에 대한 고대적 배편 강구, 심도깊게 모인 정례회, 개척교회 지원과 운영체계화, 중 사역자 양성을 위한 자립교사 대학원설 운영, 시대새 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법도적 후원모임 및 정책수립, 마리아지역회의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연장교육 및 인적자 자립을 통한 소통의 장구를 만드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문 총회장은 끝으로 “‘교단이 우리에게 될 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단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살아’는 개척 초기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총회장이 되겠다”며 애성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해비타트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첫 보금자리

3000여 러너, 24개 기업, 45명의 페이서와 함께 8.15런 기금으로 마련

대한민국 대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창주)가 가나 선과 함께 지난 5월 20일(목) 전라남도 해운도 안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호 집’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 집은 독립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어 옥중에 고문 끝에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김윤상 선생님의 손녀 김금순 할머니에게 헌정됐다.

김금순 할머니의 집은 선이 독립 75주년을 맞아 개관한 ‘2020 바추일 8.15’에서 8.15km를 완주하고 모든 기부금으로 지은 첫 번째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금자리다. 당시 3000명의 러너와 프로스펙스, BGF 리얼티, GS24나이지, 11번가, SK가스, 깨끗한나라, 하네스코리아, 크라운제과, 하림, 현대카드, 광동제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롯데푸드, SG생활인원, 프래시스코, 시즈데빌, 웅진식품, 에이치케이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브룩스(BROOKS), 상주제단, 웰플라, 이디엘, 팜도, 달콤소프트, 굿모닝 등 24개 기업은 3억 2000여 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선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조원희 등 ‘2020 바추일 8.15’에 참여했던 페이서들이 집짓기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윤창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많은 분

들의 사랑과 관심 지원으로 김금순 할머니이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한국해비타트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찬송가국제운동본부 창립예배 드려

은혜로운 찬양보급 및 찬송가 회복운동 펼쳐

전통 찬송가가 교회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찬송가가 더 많이 교회에서 불려지도록 하기 위한 찬송가국제운동본부(이사장 강영영 장로)가 지난 5월 20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나이티드교회에서 대양정성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국제운동본부는 앞으로 찬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찬양지역사 배출과 함께 성가대원 훈련과 기부를 통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찬송가 회복운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찬송가국제운동본부는 앞으로 찬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찬양지역사 배출과 함께 성가대원 훈련과 기부를 통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찬송가 회복운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강영영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은혜로운 찬송과 기쁨을 올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깨우는 통로가 되어 왔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성경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드림과 CCM 대신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안인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아지도록 하는데 찬송가국제운동본부가 견인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음 단합대회 갖고 지방회 발전 위해 기도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조갑수 목사)는 70차 총회가 마무리되고 아산선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방회 발전과 한마음을 위해 지난 5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지방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지방회 총무 김영호 목사는 임원모임을 통해 임원을 조율하고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이동할 수 있도록 3-4명의 조 편성을 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였다.

최재호(정로교회)가 풍성한 해산물을 통해 임원들을 섬겼고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10분 거리에 있는 가우로 출렁다리 둘레



길을 돌면서 바다에는 배수면에 몸을 싣고 환호성을 지는 어린이들이 모습과 신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안고 가는 발걸음을 코로나 정국 속에 답답한 마음을 탈바꿈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한 아름 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권사취임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5월 23일(주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은혜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총합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부산유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부산교회)의 대표기도, 문목사 권사의 특송, 사회자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부산교회)의 복 12:35-4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드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듯이 항상 주



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열어드릴 준비하고 계

여있으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합심기도를 하고 권사취임 서약과 안수위원들의 안수, 악수, 담임목사의 공포와 권사취임 증서 수여가 이어졌고, 부회장 김영국 목사(순복음부산교회)의 권,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

음교회의 축사, 취임자 송성림 권사의 답사, 증경지방회장 한영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취임한 송성림 권사는 "주인처럼 사랑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아낌없이 섬기며 충성을 갚겠다"고 다짐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영목 목사)는 지난 5월 27일(목) 오전 10시 초심교회(담임 김희자 전도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안자 목사(대회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석인권 목사(하늘사랑교회)의 기도, 회장 김영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담전 6:1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

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선한 증거를 하는 자 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 한 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초심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종식과 교단과 교회에 위하여 기도 후 삼관목 목사(반석위애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와 직전 회장 정윤기 목사의 헌금축복과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행사는 논산에서 초심교회(담임 김희자 전도사)가 삼관목 목사를 함께 받고 담전호 출렁다리, 생대평원 산책과 논산 시민공원을 산책하며 전도를 나누었다.

또, 지역은 논산백련순복음교회 박용성 목사가 삼관목 목사(반석위애순복음교회)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갔다.



순복음선한목자교회 창립2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은근용 목사) 순복음선한목자교회(담임 최은규 목사)는 지난 5월 23일(주일) 오후 3시 동교회에서 창립21주년 기념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안재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임형순 목사의 대표기도 후 요 2:15-17 말씀을 본문으로 사방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은 은근용 목사가 설교를 했다.

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정말 21주년을 맞이한 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끊임없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하며, 세상이 인정받는 입지 지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든든히 쓰임받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부 집사 및 권사 안수식에서는 김기윤, 최재문 집사와 황병태, 이선희 권사

의 서약, 안수, 공포 순으로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증경회장 김영목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전하세 목사의 축사, 그리고 회계 조영현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으며 지방회장은 은근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민족복음화와 교회폐쇄법·차별금지법 폐지, 국가안보 위해 기도

"2021년 제3차 민족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동용 목사)는 2021년 제3차 민족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5월 21일(금) 오전 7시 둔포아산선교교회(조이철 목사, 상임회장)에서 개최하고 교회를 믿고 제재하려는 정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우환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임영석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정동용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5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시국에도 민족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하나의 역으로 각국의 현실에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기도로 아산시 지역 지도자들을 깨우쳐서, 교회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이루며, 또한 주민자치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논의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을 당부하면서, 우환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연해질 때까지 다 함께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서 최순식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총무 차주영 목사의 성경봉독, 본회 고문 강성철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시 50:15 말씀을 본문으로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부패와 일제 강점기의 횡포와 일제, 또한 625 참사로 인한 거센에서 우환의 도모가 있었지만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발전으로 풍요로 이루어 세계 169개국에 22130명의 신교사를 파송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악법으로 공익을 사지려 한법을 파하고, 차별금지법, 공수처법, 주민자치기본법과 같은 사회주의로 가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모 없이 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외칠 때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인 신상우 목사의 세계 문화의 본이란 제목의 시낭송, 회계 박인숙 목사의 헌금기도, 강성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보고회 및 공자시향 순서로 이철발 목사(상임위원)의 사회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문제, 안보문제,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현안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아산시(가)독교연합회 회장 홍성용 목사는 연말회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이 어려운 것이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총남도(가)독교연합회 사기 정현원 목사는 차별금지법·동성애법 반대와 청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국가보안법 유지 서명 동참과 주민자치회 협회를 위한 문예제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3부 기도회는 조이철 목사(상임회장)의 인도로, 통성으로 기도한 후, 주례법 기도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여 김성권 목사(부회장), 2)증경위원장(정로교회)인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최성근 목사(부회장), 3)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이명로 목사(부회장), 4)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를 위하여 구자범 목사(부회장), 5)아기전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박성진 목사(부회장) 6)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박재호 장로(후원회) 7)국가안보를 위하여 이세영 장로(후원회)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사무총장 정진화 목사의 광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장소를 이동해 둔포아산선교교회에서 정성현 권면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물입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까지 잘했는데 하나를 빼서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점을 지으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조를 틀튼다치고 초근초근 쌓아올려야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빼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화복, 흥망성쇠로 인해 회교에 얽매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때를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점에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오직 오직 나가지 빛과 수급의 사랑을 살아간다고도 할 것입니다.

아무췌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령의 짐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정복 목사

서정복 목사

목양신문은

중고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사별 반개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생명의 말씀



김덕연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장
• 전리교회 담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필요성을 알면서도 강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강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를 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어 엘리아가 떼게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특별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비를 오게도 했고 오지 않게도 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게도 한 것입니다.

1.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왕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유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써 드리는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5-16 말씀을 보면 '만유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약 5:15-18

사립'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저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를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만 우리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율례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을 고집을 부리며 부끄러워 보아 소용이 없고 내 마음에 거리가 있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의

미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요소를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단순히 진리의 지적인 삶이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간절하게 할 때 힘이 있어서 하

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는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의 호흡인 동시에 유일의 무기로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위로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되며,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여 역사하는 힘이 많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

강원랜드 개장 20년 미래 포럼



강원도 태백시 기독교계는 '강원랜드 개장 20년 미래 포럼'을 5월 27일(목) 태백시 서학로 예안교회(담임 백정근 목사)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태백시교회연합회(대표회장 전정길 목사)를 비롯해 태백시 12개 기독교 단체와 세계성서문화운동본부 등이 함께했다.

임동진 목사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



칼빈 대학교는 지난 5월 28일(화) 배우와 목회자로서 대한민국의 연극계에 중요한 업적을 이룬 임동진 목사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임동진 목사는 1990년 TV 방송연가자 기독교우회를 설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극단예배를 창단 후 대표직을 맡고 있다.

한국성경신문 신임 사장 최현기



한국성경신문은 제31회 운영위원회, 제24회 위원회 정기총회를 최근 총무회 회에서 열고 신임 사장에 최현기 장로(총무회)를 선출했다. 최현기 신임 사장은 "운영회와 위원회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신문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17대 운영위원장이 총재로 장로(서울대신교회)를, 제14대 후원위원장으로 김용대 장로(서울제일교회)를 선임했다.

직장선교 40주년 기념 계획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기독교장로회연합회) (한진선, 이사장 주대준·대표회장 진승호)가 지난 5월 22일(토) 열린 제40차 중앙위원회에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한진선은 기존 40주년 기념사업 16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4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연문회

통 큰 선물과 감쪽 선물의 사이에서 역사적 성과인가, 역사적 과제인가?

지난 달 21일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제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 통 큰 선물을 준비했다. 4대 기업이 약 43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우리 국군 66만 명에게 맞벌이 코로나 백신을 주기로 하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이를 통해 '감쪽 선물을 받았다'고 정부와 야권에서는 호들갑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사가 길이 남을 것이다. '미국이 뭘 볼까'는 정상회담이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환'이라고, 최고의 화답이었다고 SNS를 통해 자랑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43조원 주고 물건 대신 이름만 받았다' '요런 빈 수레

와 땀비뚨운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 심지어 여론으로 구별되는 모 인사는 바이든(미 대통령), 비란(아내 데이트 문대통령) 맞았다'고 우려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생명과 영생의 다량의 백신 확보였다. 지난 달 일본의 스가 총리는 침묵을 굶으면서까지 1억 화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 또 미국 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를, 8천만 화분의 백신을 어느 나라에든지 나눠주겠다고 말도 몰랐다.

아니도 이들 국민들은 기대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에 대한 6만 화분의 백신을 준다고 한 것뿐이다. 물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접종 1차가 74%, 2차는 34%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

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여건이 자화자찬만 할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우리로 하고 미국으로부터 감쪽 선물 받았다고 감조하는 것은, 일상(日常)으로 속히 돌아가지 못하는 속이 썩은 국민들의 마음을 해라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동맹과 안보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한 것은 성과라고 본다. 한국민들 공산주의에 의하여 폭동한 사람과 국가존망을 경한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6.25를 통하여 북한, 중국, 소련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 나라였다. 또한 7.26년 지난 현 시점에 서도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패권·광주주의, 러시아의 두 나라의 공조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일, 세 나라의 안

보·경제 공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안티감조도 우리는 동맹과 우정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물론 경제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그러나 문대 정장이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 정장이 만날 때마다, 원가 경제적인 것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7년 6월 문대 대통령 방미한 정상 회담에서는 경제사절단이 15조원 투자·20조원 제품구매로, 2017년 11월 트럼프가 방한한 정상 회담에서는 19조원 투자·63조원 제품 구매의 파키지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문대 대통령 방미 회담에서는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 44조원의 투자 약속을 한 것이다. 물론 투자가 모두 순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엄청난 투자와 양

질(良質)의 알짜기를 우리나라에 마련했다면 얼마나 좋을지?

한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를 수 있다. 이번에 두 정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이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은 질문할 기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해, 한국 대통령은 '우리 아저씨(丈人)는 왜 손 안 드요?'라고 하여 현장을 당황케 했다고 한다. 미국의 공개 성명에서 요청 부탁하는 것을 오히려 성자(聖子)로 모건한다.

한국과 미국은 문화뿐 아니라 생활도 다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위를 위한 참된 외교를 아끼는가? 우리나라의 외교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미국의 성과도 같을까? 우리 정치가 평소 외교를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까지 최고 '최상'이라는 말이나 있을까?

그 동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동맹국으로부터 한번 대접을 받았다는 일지 안도감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참정(參政)의 준비와 내실 있고 정당한 외교는 외교적 실정(失政)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역사적 과제를 크게 남기게 되었다고 본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선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음식, 기, 평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삶이 숨쉬는 산청의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과 신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지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이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사지령회 회장정현영, 박사, 고연복 박사가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온돌, 단체룸)



하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성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로길로 479번길 43

교단공과 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① 아동부 공과교재
- ②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③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④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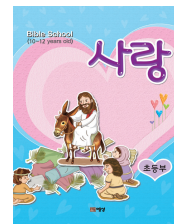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통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시장), 고재권 (아산경찰서장), 황재만 (아산시시장), 강희복 (전 아산시장), 박성기 (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
공동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송화선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권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경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선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부회장	정진학 목사
사무총장	차추병 목사
상임총무	정진학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인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문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 메를성물집

- 1 손상된 신체조직 복구 (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 억제 각종 암의 예방 (위암)
- (고려대학교 순음성 교수님 암으로 세계특허 받음)

2) 골리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 (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 (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 (한계보교)

3) 타식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 호르몬,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 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갈솔 : 혈액순환의 2배, 열차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7) 식이섬유 : 탄수화물(대리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 (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괴,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 (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 (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j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봉사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중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Q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감독)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길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학습기기 없어”

희망친구 기아대책, 학습실태 조사결과 비대면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 전환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아동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전과 함께 전국 취약계층 초·중·고교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학습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실제 파악을 목적으로 8세에서 19세 사이의 전국 기아대책 결연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기기 3대 이상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열악한 학습여건 속에서 성적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 디지털 학습기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아동 중 31.8%는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기나 전선 없이는 응답도 9.2%를 차지했다.

열악한 가정 내 학습 환경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 아동의 대부분(88.7%)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공간이 '집(거주지)'이라고 밝힌 가운데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26.3%에 달했다.

취약계층 아동은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 혼자 학습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가까운 47.6%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준 사람이 없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혼자 해결'



(16.3%)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 (7.9%)고 밝혔다.

이번 가운데 응답 아동의 5명 중 1명(18.8%)은 2019년 학기 보다 2020년 성적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시간' (66.8%)을 꼽았다.

아울러 아동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8%가 '대면 수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면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일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5.4%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6명 이상(67.8%)은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며 가장 큰 이유로 '친구 관계' (84.8%)를 꼽았다.

원만한 친구관계를 위해서도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아동(82.6%)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88.3%)나 전화 통화(49.6%)를 이용해 친구와 연락하고 있지만 '직접한 교육관계를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아동이 81.4%였다. 또한 74%의 아동은 '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결핍이 적어도나 양적으로 모두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권순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는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 아동이 직접 실험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아동의 실제 상태와 인식 변화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수지 대타로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식 기아대책 회장은 "기아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아동 돌봄 공백, 온라인 학습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한 실제 파악과 지원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동·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 및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효과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대책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제2회 아동 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년, 온라인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학습격차와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권순원 기아대책 외부연구원 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장정혜 경기도교육연구 원 팀장, 김진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송승선 서울신문 기자, 김윤하 밀알행복한소셜사업장, 임수진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 복지기획과장, 정이중 이화여자 사회복합학과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기아대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GVCS-레알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 협약식

유·청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것

UEFA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등 유럽 축구 최대 리그에서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글로벌 발전전교과 손잡고 레알 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지난 5월 21일(금) 레알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글로벌 발전전교과(GE) 남진석 이사장, 레알마드리드 디렉터 줄리오 곤잘레스, 레알마드리드 레전드 선수 알바로 아르벨로와, 그리고 아이젠스 C&F타탈리아엔트나스스포츠의 김나나 대표가 참석했다.

글로벌 발전전교과 남진석 이사장은 "이번 유망명문 구단인 레알마드리드와 함께 유·청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들 계기를 단순한 국내 엘리트 축구로 이어지는 외길 스포츠 인자가 아닌 세계 무대를 목표로 스포츠의 다양한 경험과 활로, 새로운 문화와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글로벌



별인재가 많아질지 바란다"라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 디렉터 Julio Gonzalez는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레알마드리드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을 700개의 프로젝트, 캠프

퍼스, 학교, 클리닉을 통해 진행해 왔다. 레알마드리드는 이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가치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철학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GVCS스포츠 김나나대표는 "레알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되어 기쁘며, 이가 대가 한국 축구 유망주들에게 해외진출의 계교로 가 되기를 희망한다. 유망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공개 및 개별 오디션 등을 통해 모집될 예정이다.

한편, 문정권퍼스에 위치한 레알 마드리드 한국 아카데미는 아직 전문적인 축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국내 유소년들을 발굴하고 글로벌 축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 줄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 제135회 정기이사회 개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재 개정토록 허락

대한성서공회 제135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이철규 목사(부평제일교회)가 회가 '행성 자기 헌들었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고대필목회총신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강재문 목사(이곡교회[대한성서교회]), 조성봉 목사(이곡교회[침례교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소개되고, 찬송가원 대표로 이창의 목사, 김경원 목사, 이윤호 목사, 박철영 장로, 최규만 장로가, 감사로는 송영은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원의 사정보고(별첨)와 사료보고

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신 임원을 인선하여 이사장 이창의 목사, 부이사장 양병태 목사, 서기 강준권 목사, 회계 김경원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현태 목사,

김동권 목사, 정하복 목사, 이윤호 목사, 이선로 목사, 손운영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윤용 상임이사를 재선임하였으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재 개정토록 허락했다.'



신간 안내

[개정판] 스가라 - 오직 나의 신으로 소년선지 강해설교



본문의 맥락을 잡아내는 성경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이 돋보이는 단권본 소년선지 강해설교 시리즈 스가라 선지자가 말하는 위기 속 희망 스가라 선지자 사대의 유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 희망을 탈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에 스가라는 무엇을 통해 희망을 보았는가?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던 악소민족 유다에 계시된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이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서택 목사의 소년선지 강해설교 시리즈는 2002년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묵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사랑받아 온 강해 설교집으로, 표지를 바꾸어 새롭게 펴내는 것이다.

저자: 김서택 | 출판사: 흥성사

발행일: 2021-03-19 | (152*224mm 436p | 판매가: 16,000원)

그 사람 모세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 이후 신앙생활 자체가 장지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적 무관심 상태에 이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뒤에야 교회를 영입 떠나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광야상황은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적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일을 신앙적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장상으로 돌아왔을 때 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다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에도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성룡 | 출판사: 북있는 사람

발행일: 2021-05-06 | (142*214mm 320p | 판매가: 15,000원)

하나님을 위한 예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술의 분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만지는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예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예술의 원천이시고 자신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하리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술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 그라이엄 라이온은 이 문제에 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재능을 가진 모든 예술가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마땅한 자세를 재확인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술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현시대의 인간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변화를 일구어내는 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저자/역자: 빌립 그라이엄 라이온 | 역자: 박광영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5-21 | (125*200mm 104p | 판매가: 7,000원)

바울과 은혜의 능력



바울과 은혜의 능력 1-9장은 목회자/평신도들을 위해 바울과 선물을 위한 문제와 긴장된 논의로 요약하면서,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형제적인 깨우침, 곧 하나님께 무가치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선포하고, 이로써 '바울 연구를 재조명'한다. 10-11장에서는 그 은혜 개념을 토대로 고전도전서사를 주해하면서, "은혜가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사로 만드는" 힘을 지닌다는 점, '인간적 가치의 부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인간 외부에서 온다는 점, 곧 은혜의 힘, 능력, 역동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13장에서는 이러한 은혜 신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현시대의 인간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변화를 일구어내는 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저자/역자: 존 M. G. 바클레이 | 강해: 김성룡 | 출판사: 김은사

발행일: 2021-05-18 | (140*206mm 400p | 판매가: 24,800원)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 재 위촉 받아, 장현일 공공정책연구원장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성평화 무교회 목사)는 5월 21일(금) 서울시 마포구청장 유동균 회의를 통해 2021년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공

모사업의 심의 기준을 사업 타당성(필요성·공익성)과 사업 실행력 및 효과성(현실성·지속가능성·예산·예산성)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주민의 수요와 지역문제 해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들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을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이웃들(이웃)과 공동체(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구로 손꼽히고 있다.

마포구는 도시집중화와 개인주의가 확대되어 공공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구로 손꼽히고 있다.

장 박사는 이번 심의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공

예성 미래목회위원회 세미나 개최

목회자 이종직 허용문제도 논의

예수교대한성서교회(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갈수록 목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모든 어려움에 땀땀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교역자들을 위해 3040 부교역자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열린 공과를 마련했다. 제10회기 총회 미래목회위원회 1회 행사인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허브스쿨 본관에서 총 30명이 등락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우열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찬으로 △예는 강의 인용과 목사-생존이나 도전이나 △주제 강의(이규 목사-시령을 사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으며, 그리고 오찬이후에는 △비밀로(비밀로, 임시영, 윤성철 목사-부교역자, 이제를 말할 수 있다) △주제강의(한문태 목사-나는 피부성리라고 살았으리라) △총회장 김갑희(이상문 목사-이건 꼭 해주어야) △마침내 기도(이종직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CTS, 한국교회 위해 'TV성경학교'

'다음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진행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TV어름성경학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 CTS가 전국의 농어촌교회와 작은교회를 위한 'TV성경학교'를 론칭하기 위해 주요 교단 교육부서와 함께 '다음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장기회로는 코로나 시대로 한국교회의 전통인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CTS는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의 다음세대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성경적 가치관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TV성경학교'는 CTS의 다음세대 미스코트인 '아빠의 성장이야기' '헤스토리'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

춘 전략 콘텐츠뿐 아니라 성경적 가정교육과 신앙양육을 위한 CTS의 교육콘텐츠로 채워진다.

특히 올해는 합동, 통합, 기성, 고신 기성 등 주요교단의 교육부서와 협력해 공과, 만들기, 찬양 등 교회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교단 교육국의 동향으로 온택트 시대에 한국교회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홈스쿨 전문교육회사인 '처음교육대표 조은미' 등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관과 함께 캐릭터 상품기획과 교재출판 등 다음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기총, UN 사무총장에게 '동양인 혐오 확산' 대처 촉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병중 목사, 사무총장 심영수 목사는 1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에게 최근 미국과 유럽에 만연되고 있는 '동양인 혐오 확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세기총 대표회장 심병중 목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세기총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단체인

만큼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기총은 서한을 통해 UN이 인종차별 행위와 중요 범죄로부터 동양인들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창립

가족세트전도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전도자로서 43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았고 내가 만든 가족세트전도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는 전도법입니다. 이를 목회현장에서 체험했다.

이 가족세트전도법은 첫째,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도법을 모두 통합하고 융합하여 나온 전도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종기능과 같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학습하고 깨달아지는 전도법입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입니다. 누구나 3개월만 전도 현장에서 따라하고 배우면 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면서 바로 보면서 깨달아지는 전도법입니다. 네 번째는 초연결 전도법입니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요 1:12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이함과 생명의 열, 주스와 핸드폰으로, 가족들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당일 심판과 교제까지 붙이고 그 주에 교제에 온다는 약속까지 받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전도법입니다.

과거에 순차적이고 과정을 경험하는 전도가 아닌 현

장에서 열매를 산출하는 초스피드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즉시 물러가듯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즉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통 10:9-10) 대반혁적 전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세트전도법은 미래가 감춰져있는 성경의 시대로 가듯이 전도대상자가 요 1:12 말씀을 부지불식간에 따라함으로써 성경의 능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에 하는 놀라운 전도법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에 도전 받고 모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창립 문헌교회TV방송 대표 박영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장기기증인 유가족’에게 존경의 장미를”

51명 스타, 1,500만 명의 팬들과 도너패밀리들의 사랑을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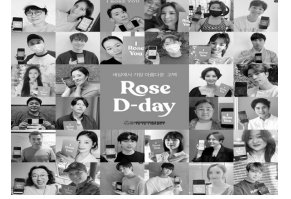
(재)시령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5월 14일을 장기기증인 가족들을 위한 날인 'Rose D-day'로 정하고 국내 최초로 5월 한 달 동안 1 Rose You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인 뿐 아니라 송고한 장정을 내려 준 기증인의 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기획됐다.

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장기기증인 유가족인 '도너패밀리'를 위해 소모임 및 문화 공연,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매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모임을 진행할 수 없어 올해는 SNS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

을 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로 세상을 떠나며 장기기증을 실천한 이들은 6천여 명이 넘는다. 장기기증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이들의 송고한 나눔을 기억하고,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귀한 결정을 내려준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Rose D-day' 캠페인에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특히 유명 연예인 50명이 캠페인 참여에 앞장서며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증인의 가족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가수 김정은 양씨 역시 지난 2019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생애나눔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그는 이번 캠페



인에 아이돌 최초로 참여하며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600만 명이 넘는 팬들에게 기증인과 도너패밀리들의 사랑을 전했다.

월드비전-해성그룹, 식수지원사업

3년간 탄자니아 은다바시지역 후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해성그룹과 지난 5월 18일(화) 본사에서 식수지원사업을 위한 약정식을 진행했다.

해성그룹은 이번 약정을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은다바시지역 기드바스마을에 매년 5백만 원씩 3년간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해성그룹 단체인 회장을 비롯해 총 7개의 계열사(해성산업, 한국제지, 제강전기, 해성디에스, 한국팩키지, 원광정보공업, 세하)가 후원에 동참한다. 안정적인 식수지원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수난 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후원금은 우물 시추, 태양광 전기 시스템, 물탱크, 파이프라인 설치, 식수 시설 보수 등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해성그룹 단체인 회장은 "탄자니아 아이들은 여전히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학교에 등교

하는 대신 먼 거리로 물을 길러 가야한다고 들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성그룹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해성그룹의 꾸준한 나눔에 늘 감사드리며, 나눠주는 선한 마음 덕분에 기드바스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많은 아이들이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gargle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갑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 다짐

남원중앙교회 제14대 정종승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드려
총회장 신재영 목사 “은혜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교회” 축복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길교회 담임



정종승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충청남도 남원, 인구 7만 명의 작은 소도시. 1963년에 설립되어 곧 70주년을 맞는 남원중앙교회는 민족의 아픈 전쟁으로 인해 황폐한 땅에 세워진 영혼의 등대요 안식처였다. 성령의 강한 역사는 사람들의 빛과 기쁨을 보듬고 위로해 주었다.

남원시 죽향동 시내 중심가에 세워진 교회는 70년에 이르는 세월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었다.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동안 주변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여건도 변하면서 교회는 역사의 아픔을 품고 기쁨과 없는 이들이게 삶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남원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 역사와 함께 한다. 1963년 4월 10일 교단이 창설되었다. 남원중앙교회는 그보다 25일 앞서 1963년 3월 15일 남원시 죽향동 75번지 현 교회위치에 마병(馬病) 18평을 사서 예배처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해 10월 3일에 교단 창설 교역자이신 박성산 목사를 모시고 설립예배를 드렸으며 지금까지 교단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남원중앙교회는 세월만큼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이제 14대 담임목사로 정종승 목사가 취임하게 되었다. 정 목사는 오랜 동안 연합기관과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몸소 실천해온 섬김의 목회자다. 앞으로 남원중앙교회의 70주년, 100주년을 향한 행보가 기대된다.

남원중앙교회 제14대 정종승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5월 31일(월) 저녁 7시 남원중앙교회에서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해 교단 임원진들과 원로 각처에서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주최를 철저히 준수하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남원중앙교회 아이노스찬양단의 인도로 함께 찬양한 뒤 교단 사무국장 윤기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서기 정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한순남 목사의 성경봉독, 아이노스찬양단의 특별찬양,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목사는 고루 87-9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한 남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강조한 뒤 “오늘 취임하는 담임 정종승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남원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감격의 축복했다.

끝으로 이어진 담임목사 취임식은 취임목사 소개,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서약 및 취임공포, 교단 회계 감건수 목사의 축복기도, 부총회장 정영섭 목사의 권면과 축사, 순복음총회교회 교역자들의 축하, 남원중앙교회 장로회장의 축하회환 및 선물증정이 있었으며 남원중앙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정종승 목사의 담임목사 인사 및 가족소개, 장로회장의 광고,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14대 담임목사 정종승 목사의 취임감사예배의 모든 순



사가 마무리 되었다.

남원중앙교회 담임 정종승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로온 영적각성을 요구하는 이때에 남원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고 전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뿐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목회를 감당할 것”을 다짐한 뒤 이틀뒤에 지속적인 사랑과 정복기도를 당부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집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 회화 권사

말씀의 날개를 달고



말씀의 날개
달지 않으면
무거운 신앙생활

그래서
그분의 자녀는 날아야 한다.
약속 실은 말씀의 날개 달고
날아야 한다.

약속 믿고
희이 희이 날개 치면
자유하는 신앙생활

문제 속에 감춰진 비밀
높이 날아오르면 볼 수 있도록
이미 들려준 그분의 약속 아니던가!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비밀
기어가는 모습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날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의무이며 당연한 특권이 아닌가!!

나비처럼 날아야만
볼 수 있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들...

꽃들에게 피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과
거룩한 영혼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리움을 통해 살금살금
알아가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중독예방,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

청소년중독예방전문강사 양성과정 진행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교계기자 간담회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대표 조현실 교수
이장 홍호수 박사, 이화 정혜복은 지난 5월 20일
(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동 본부 사무실에서 기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중독예방전문강사 양성과
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중독예방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청소년들
의 중독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올해 12월 4일까지 온라인 중계 000M 또는
Youtube를 통해 주로 진행된다. 현장 수업은 학기
별로 1회만 실시하며 강사진으로는 조현실 교수·

김정환 목사· 김준 교수 등 성경적 중독예방교육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대표 조현실 교수(충신대 재향학대학과)
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36.6%로 10명
중 4명이고,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스마트폰 중
독 비율이 22%로 성인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
했다.

조 교수는 또 “스마트 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향
후 청소년기에는 음란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
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번씩 음
란물을 본다. 스마트폰 폰에 ‘아동’이라는 단어만 쳐
도 수 백편이 검색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잘못
된 성문화로 흐르게 한 원인”이라며 “청소년의 중
독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 교회가 이를 몰라 안타깝
다. 중독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안방 속 깊숙이
들어왔다. 성령의 은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www.yepmkr



사설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

조선시대의 개혁적인 왕 정조는 창제비로 고고하고
예를 썼으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은
아예 발탁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지탄 받는 사람은 아
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을 이끄는 데 방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노력
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상거래
를 보장함으로써 세수를 늘리려고 했다. 요즘처럼 국가
부채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정조 시대를 생각하면서 요
즈음의 정치권을 바라본다.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
이다.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손에 달
려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지구촌이 되어 버린 지금 시대에는 자신의
욕심도 버리고 국제정세도 잘 살펴 줄 알아야만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 안 될 일이다. 국제정세 현
실주요를 외면하고 감성적 민족주의에 집착해서 외교,
안보적 재정을 지출해선 안 된다.

시대적요의 중추(中樞), 중북, 반일노선으로 북핵 앞
에 발거(發거)는 모습으로 안보를 위협하게 해서 안 된다.

일이다. 시민평화나 김정연에게 굴종과 경멸과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통치자가 무능한 민생
이 어려워지는 법이고 외교, 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이다.

지금 이 나라는 청춘이 떠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
다. 슬프고도 고통스런 일이다. 청년들의 불행은 문 정
부 출범 딱 1년만인 2018년 5월에 시작됐다. 그것이다(C
일보 V는설위행),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과 소
상공인이 고충을 줄이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1000조를
누가 감아야 할까? 지금의 청년들이 떠나는 부채다.

2019년 8월 조국사태로 갖가지 의혹이 속 기쁘게터
져나와 윤리(義)가 비박을 쳤다. 조국 사태, 가짜뉴스, 부
정부패와 거짓이 넘쳐나면서 사회의 정직과 윤리(義)가
파탄 나 버렸다. 영지를 모르는 판박한 내로라한 이들을
넘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
는 세상이다. 법의 잣대가 길을 잃고 있다. 권력에 취해
실주(失主)를 행하고도 부주의가 없다. 주의 이름을 기억
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여 내가 법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나이다 내 소원이 이것
이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시 119:55-56)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법을 폐
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경제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 법
률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렇다
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
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이 무뎌지고 옷을 벗
어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
래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다만 인권을 증진하는 시대적
인적 요구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제2 제헌헌에서 밝
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
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 이 목적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
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적, 혹은 국제적(國際
的) 행위를 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
法的) 발상이나 법률을 썼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
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
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결하였
다고 한다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
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
는 야만(野蠻)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아바를 구
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
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
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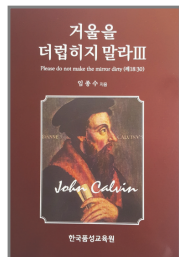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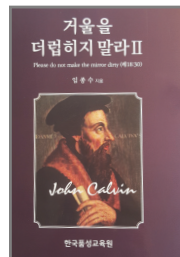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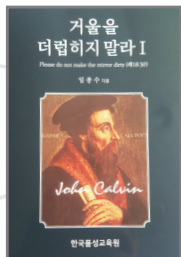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대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번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
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제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 2, 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경, 덕성, 인격, 개성을 비유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몰라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도행전 13:1-3에 예하성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